



## 신라 善德王代の 불교정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Policy on Buddhism during the Reign of King Sundeok in Silla

---

저자            金德原  
(Authors)      Kim, Deok-won

출처            [신라사학보](#) , (31), 2014.8, 1-36 (36 pages)  
(Source)        [SILLASAHAKPO](#) , (31), 2014.8, 1-36 (36 pages)

발행처         [신라사학회](#)  
(Publisher)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94563>

APA Style      金德原 (2014). 신라 善德王代の 불교정책에 대한 고찰. 신라사학보, (31), 1-36.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8/04 13:09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 善德王代の 불교정책에 대한 고찰

金 德 原\*

- |                |                             |
|----------------|-----------------------------|
| I. 머리말         | III. 승려들의 활동과 새로운 불교 사상의 수용 |
| II. 사원창건과 佛事활동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선덕왕은 즉위과정에서 제기된 ‘여왕’에 대한 문제를 불교정책을 추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선덕왕대의 불교정책은 크게 사원의 창건과 건탑을 비롯한 佛事활동과 승려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불교사상의 수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덕왕대의 불교정책은 642년(선덕왕 11)을 기준으로 초기와 후기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선덕왕대 초기의 불교정책은 芬皇寺와 靈廟寺(靈妙寺)의 창건과 皇龍寺에서 百高座會를 개최하여 《仁王經》을 강론하였고, 또 度僧을 실시하였

### \* 명지대학교 사학과 강사

주요 논저 : <신라 上代 교육활동의 諸樣相 -國學 설립의 이해를 위한 前提-> 《한국학논총》 3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신라 國學의 설립과 그 주도세력> 《震檀學報》 112, 震檀學會, 2011 ; <佛敎經典의 사상이 한국 傳統信仰에 끼친 영향 -天神(太陽)·山神·水神(龍)思想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學報》 12, 韓國古代史探究學會, 2012 ;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전쟁 기사 검토> 《新羅史學報》 29, 新羅史學會, 2013 외 다수

다. 그리고 후기의 불교정책은 通度寺의 창건과 皇龍寺九層木塔의 건립, 그리고 도승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慈藏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선덕왕대에는 활발한 불교정책의 영향으로 다른 시대보다도 많은 승려들이 활동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慈藏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 외에 密本·良志·惠空·元曉·明朗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활발한 활동의 결과로 새로운 불교사상이 수용되면서 교단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덕왕대의 불교정책은 중고기 왕실을 중심으로 추진된 불교정책이 마지막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敎學佛敎가 발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던 일종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시기라는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진덕왕대에는 선덕왕대와는 달리 불교에 대한 기록 대신에 유교와 관련된 기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당시 정국운영을 주도하는 세력의 정치적인 이해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유교적인 정치이념을 추구하였던 신라 中代의 모습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주제어 : 善德王, 불교정책, 사원 창건, 佛事활동, 승려 활동, 불교사상, 度僧, 慈藏

## I. 머리말

신라 제27대 善德王은 신라 최초의 女王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신라에서도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선덕왕이 즉위하기 이전부터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다.<sup>1)</sup> 이러한

1) 《삼국유사》 권1, 紀異1 善德王知幾三事. 모란꽃[牧丹]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선덕왕의 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선덕왕의 즉위에 대한 정당성의 방편이거나(辛鍾遠, <<三國遺事>>

사실은 즉위뿐만 아니라 선덕왕과 관련된 문제는 당시에 그 만큼 특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덕왕이 즉위한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sup>2)</sup>

선덕왕대에 추진하였던 정책은 그 이전의 진평왕대는 물론이고 그 이후의 진덕왕대에 추진하였던 정책과 비교하였을 때 일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진평왕대는 각종 官府의 설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도정비를 실시하였고,<sup>3)</sup> 특히 진덕왕대에는 唐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유교적인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한 지배체제를 추구하였다.<sup>4)</sup> 그러나 선덕왕대는 이러한 모습보다는 芬皇寺와 靈廟寺의 창건, 皇龍寺九層木塔의 건립, 그리고 百座講會의 개최와 度僧의 실시 등 다양한 불교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慈藏 등의 승려들이 활동하였고, 그와 더불어 새로운 불교사상이 수용되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규명하여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지만, 확실히 진평왕대와 진덕왕대와는 구별되는

善德王知幾三事의 몇 가지 問題>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7, 1996 ; 《삼국유사 새로 읽기》 (1), 일지사, 2004, 119~120쪽), 또는 즉위의 명분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朴淳教, 《金春秋의 執權過程 研究》, 慶北大 博士學位論文, 1999, 69쪽).

- 2) 신라 중고기에는 두 차례의 반란사건이 발생하였는데, 631년(진평왕 53) 柒宿의 謀叛과 647년(선덕왕 16) 毗曇의 叛亂이 그것이다. 두 사건 모두 ‘女王’인 선덕왕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그 결과 모두 ‘夷九族’으로 처벌되었다(金德原, <신라 中古期 叛亂의 原因과 성격> 《民族文化論叢》 38, 2008a, 103~106쪽 참조). 이러한 예를 통해서 선덕왕과 관련된 문제는 즉위 이전은 물론이고 즉위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진평왕대의 官府 설치에 대한 연구성과는 金德原, <金龍春의 生涯와 活動> 《明知史論》 11·12, 2000 ; 《新羅中古政治史研究》, 景仁文化社, 2007, 128쪽 참조.
- 4) 진덕왕대의 唐의 제도 수용에 대한 연구성과는 金德原, <新羅 眞德王代 金春秋의 對唐外交와 官制整備> 《新羅文化》 29, 2007 ; 앞의 책, 2007, 240~241쪽 참조.

모습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진덕왕은 선덕왕을 이어서 즉위하였기 때문에 연이어 여왕이 등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왕대에 추진하였던 정책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당시의 정국운영을 주도하였던 세력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는 그 당시 정국운영을 주도하였던 세력의 정치적인 이해가 반영이 된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이상이고, 그것의 실현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덕왕대의 불교정책에 대한 고찰은 선덕왕대의 정국운영은 물론 당시의 정치세력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라고도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서 선덕왕대의 불교정책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선덕왕대 실시되었던 사원의 창건과 佛事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 승려들의 활동과 새로운 불교사상의 수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선덕왕대의 불교정책의 특징에 대하여 간단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 II. 사원창건과 佛事활동

선덕왕은 631년(진평왕 53)에 발생하였던 柒宿과 石品の 모반 사건을 진압한 이후 불과 1년도 안 되어 즉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선덕왕이 즉위한 이후에도 정국운영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A-1. (원년) 2월에 大臣 乙祭로 하여금 나라의 정무를 총괄하게 하였다.<sup>5)</sup>
2. (원년) 겨울 10월에 使者를 보내 나라 안의 홀아비와 홀어미, 부모 없는 어린아이와 자식 없는 늙은이 그리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문하고 진휼하였다.<sup>6)</sup>
3. (4년) 겨울 11월에 伊滄 水品과 龍樹<또는 龍春이라고도 하였다>를 보내 州·縣을 두루 돌며 위문하였다.<sup>7)</sup>

위의 기록은 선덕왕 원년 2월에 大臣 乙祭에게 政務를 총괄하게 하였고, 겨울 10월에는 使者를 보내 나라 안의 사람들을 위문하고 진휼하였으며, 또 선덕왕 4년 겨울 11월에는 伊滄 水品과 龍樹(또는 龍春)에게 州縣을 위무하였다는 기록이다.

선덕왕은 631년(진평왕 53)에 발생하였던 칠숙과 석품의 모반을 진압한 이후에 즉위하였다. 이 사건은 선덕왕의 즉위를 반대한 세력들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金龍春과 金舒玄으로 대표되는 ‘舍輪系’에게 진압된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그러므로 선덕왕의 즉위 초기에는 이 모반사건을 진압하였던 세력들을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덕왕 초기에 활동하였던 사람들은 이 모반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아니면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 정국을 장악하였던 세력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활동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덕왕은 즉위 초기에 몇몇 고위 진골귀족들을 중용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정국운영을 추진하였다.<sup>9)</sup> 위의 사료 A에

- 
- 5)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원년 2월.  
 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원년 겨울 10월.  
 7)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4년 겨울 11월.  
 8) 金德原, 앞의 논문, 2008a, 105쪽.  
 9) 이와 관련하여 김선주는 선덕여왕은 왕으로서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졌고, 실제 국가 운영은 을제가 총괄하는 이원체제로 파악하였다(김선주,

의하면 이들은 大臣 乙祭, 伊滄 水品과 龍春 등이었는데, 將軍 關川과<sup>10)</sup> 彌吞, 이찬 思眞 등도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사료 A-2의 使者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A-3의 이찬 수품과 용수(용춘)의 예로 미루어 그도 당시의 정국에서 유력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마도 637년(선덕왕 6) 舒弗郡에 임명된<sup>11)</sup> 이찬 사진이 아닐까 한다.

다른 한편으로 선덕왕은 즉위과정에서 제기된 ‘여왕’에 대한 문제를 불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하려고 하였다.<sup>12)</sup> 이러한 선덕왕대의 불교정책은 크게 사원의 창건과 건담을 비롯한 佛事활동과 승려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불교사상의 수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 중고기에 창건된 50여개의 사원 중에서 25개의 사원이 선덕왕대에 창건되었으며,<sup>13)</sup> 또한 승려의 수도 크

---

<선덕여왕의 즉위 배경과 통치적 특징> 《패미니즘연구》 제9권 2호, 2009, 320쪽.

10) 김병곤, <신라 중대로의 전환기 알천의 역할과 위상> 《新羅文化》 40, 2012, 31~32쪽.

1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6년 봄 정월.

12) 朱甫暎, <毗曇의 亂과 善德王代 政治運營>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論叢》(上), 一潮閣, 1994, 213~217쪽; 鄭容淑, <新羅 善德王代의 정국동향과 毗曇의 亂>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論叢》(上), 一潮閣, 1994, 258~259쪽; 李仁哲, <芬皇寺 創建의 政治·經濟的 背景>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0, 1999, 12쪽; 김선주, 앞의 논문, 2009, 328~329쪽.

13) 李仁哲은 신라 중고기에 50개의 사원이 창건되었는데, 그 중에서 12개의 사원이 지방에서 창건된 것이고 나머지 38개 정도는 경주일대에 있었으며, 시기적으로는 선덕왕대에 25개에 이르는 사원이 창건되었다고 파악하였다(李仁哲, <新羅上代의 佛寺造營과 그 社會·經濟的 基盤> 《白山學報》 52, 1999; 진성규·이인철, 《신라의 불교사원》, 백산자료원, 2003, 229쪽). 한편 李根直은 경주분지 일대의 寺址에서 확인되는 신라시대의 사원은 50여 개소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중고기의 사원은 10여개 소이

게 증가한<sup>14)</sup> 사실이 주목된다.

선덕왕대의 불교에 대한 기록은 대체로 즉위 초기와 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선덕왕대의 불교정책은 642년(선덕왕 11)을 기준으로 크게 초기와 후기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B-1. 芬皇寺가 완성되었다.<sup>15)</sup>

2. ... 넷째는 龍宮 북쪽<지금의 芬皇寺이다. 선덕왕 甲午에 처음 개창되었다>이요, ...<sup>16)</sup>

C-1. 靈廟寺가 완성되었다.<sup>17)</sup>

2. ... 선덕왕이 靈廟寺를 창건한 것은 良志法師의 전기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sup>18)</sup>
3. ... 다섯째는 沙川尾<지금의 靈妙寺이다. 선덕왕 乙未에 처음 개창되었다>요, ...<sup>19)</sup>
4. 선덕왕이 절을 창건하고 塑像을 조성한 인연은 良志法師傳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sup>20)</sup>
5. ...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기예에도 통달하여 신묘함이 비할 데가 없었다. 또한 筆札에도 능하여 靈廟寺의 丈六三尊과 天王像과 殿塔의 기와, 天王寺 탑 밑의 八部神將, 法林寺의 主佛三尊과 좌우 金剛神 등은 모두 (그가) 만든 것들이다. (또) 영묘사와 법림사 두 절의 懸板도 썼으며 또 일찍이 벽돌을 다듬어 작은 탑 하나를

---

며, 통일기의 사원은 4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이근직, <신라 왕경의 형성과정과 사원> 《東岳美術史學》 11, 2010, 105~106쪽).

14) 신선혜, <신라 중고기 불교계의 동향과 승정> 《한국사학보》 26, 2006, 102쪽.  
 15)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3년.  
 16) 《삼국유사》 권3, 興法3 阿道基羅.  
 17)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4년.  
 18) 《삼국유사》 권1, 紀異2 善德王知幾三事.  
 19) 《삼국유사》 권3, 興法3 阿道基羅.  
 20) 《삼국유사》 권3, 塔像4 靈妙寺丈六.

만들고 거기에 3천불을 만들어 그 탑에 모시어 절 안에 두고 공경 하였다. 그가 영묘사의 장륙상을 만들 때는 스스로 入定하여 수정 [正受]의 태도로 대하는 것을 법식[揉式]으로 삼으니, 이 때문에 성 안의 남녀가 다투어 진흙을 날랐다. ... 지금도 그곳 사람들이 방아를 찧거나 다른 일을 할 때 모두 이 노래를 부르는데, 대개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장륙상을 처음 조성할 때 든 비용은 곡식 2만 3천 7백섬이었다<혹은 다시 도금할 때의 비용이라고도 한다>. ... 21)

D-1. 3월에 왕이 병이 들었는데 의술과 기도가 효과가 없으므로 皇龍寺에서 百高座會를 열어 승려를 모아 《仁王經》을 강론케 하고 100명에게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sup>21)</sup>

2. ... 이때에 국왕이 百座仁王經大會를 설치하고 널리 碩德을 찾았는데 本州에서 명망으로 元曉를 천거하였으나 諸德이 그 사람 됨을 미워하여 왕에게 참소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 23)

위의 기록은 선덕왕 초기에 분황사와 영묘사의 창건과 또 황룡사에서 백고좌회를 개최하여 《仁王經》을 강론하였고, 또 度僧을 하였다는 불사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분황사에<sup>24)</sup> 대한 문제부터 살펴보자. 분황사는 王芬寺라고

21) 《삼국유사》 권4, 義解5, 良志使錫.

2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5년 3월.

23) 《宋高僧傳》 권4, 新羅國黃龍寺元曉傳.

24) 분황사에 대해서는 慶州文化宣揚會,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0, 1999 참조. 여기에는 “芬皇寺의 諸照明”이라는 주제로 李仁哲, <芬皇寺 創建의 政治·經濟的背景> : 辛鍾遠, <《三國遺事》에 실린 芬皇寺 觀音菩薩 說話 譯註> : 張志勳, <慈藏과 芬皇寺> : 南東信, <元曉와 芬皇寺 關係의 史的 考察> : 福士慈稔, <著述을 통해서 본 元曉의 思想> : 張忠植, <慶州 芬皇寺의 道場性格과 藥師銅像> : 朴慶植, <芬皇寺 模塼石塔에 대한 考察> : 姜友邦, <芬皇寺의 金剛力士像> : 李康根, <芬皇寺의 伽藍配置와 三金堂 形式> : 河田 貞, <芬皇寺塔藏置佛舍利 莊嚴具의 諸相 -日本 飛鳥寺(法興寺)塔址出土遺物との 關連性-> : 申昌秀,

도<sup>25)</sup> 하였는데, 634년(선덕왕 3)에 완성되었다.<sup>26)</sup> 분황사는 ‘분황’이라는 독특한 寺名의 뜻을 ‘향기롭고 아름다운 절’ 또는 ‘세상의 괴로움과 번뇌에 물들지 않은 芬陀利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 道場’,<sup>27)</sup> 아니면 ‘향기로운 임금의 절’이나<sup>28)</sup> ‘여왕의 사찰’ 또는 ‘여왕을 위한 사찰’<sup>29)</sup> 등으로 파악하여 선덕왕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분황사는 선덕왕의 즉위를 정당화하고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창건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30)</sup> 다시 말하면 ‘여왕’으로서의 선덕왕의 한계를 극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창건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황사의 창건과 때를 같이 하여 仁平으로 改元하였는데, 이것은 여왕체제의 출범을 대외에 천명하는 정치적 행위이며, 분황사는 그것을 기념하는 상징물이라고 이해

---

<芬皇寺의 沿革과 發掘調査> : 洪光杓, <芬皇寺의 復元을 위한 몇 가지 疑問> 등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외에 분황사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金煥泰, <芬皇寺와 元曉의 關係史的 考察> 《元曉學研究》 1, 1996 : 金竣永, <芬皇寺의 창건시기와 배경에 대한 재검토> 《民族文化論叢》 42, 2009 : 박대남, <사찰구조와 출토유물로 본 芬皇寺 성격 고찰> 《韓國古代史探究學報》 3, 2009 참조.

25) 《續高僧傳》 권24, 慈藏傳 : 《삼국유사》 권4, 義解5 圓光西學.

26) 金竣永은 분황사는 진평왕대에 발원되고 계획·착공되어 634년에 완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선덕왕이 분황사를 창건하였다는 논의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金竣永, 앞의 논문, 2009, 536~538쪽).

27) 金煥泰, 앞의 논문, 1996, 18쪽 및 22쪽.

28) 南東信, 앞의 논문, 1999, 79쪽.

29) 金竣永, 앞의 논문, 2009, 534쪽.

30) 南東信, 앞의 논문, 1999, 79쪽 : 李仁哲, 앞의 논문, 1999, 18쪽. 한편 金竣永은 분황사는 여왕후계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산물이었으며, 西竺에 대비되는 東竺新羅의 불국토화를 구현함으로써 왕실의 권위와 후계자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그리고 자신의 딸 덕만의 안녕을 염원하였던 진평왕의 의지의 표현이자 출발이라고 하였다(金竣永, 앞의 논문, 2009, 545~553쪽).

하고 있다.<sup>31)</sup>

이와 같이 분황사는 ‘여왕’인 선덕왕과 관련되어 창건된 사원이었고, 또 선덕왕대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분황사는 前佛時代 七處伽藍 중의 하나에<sup>32)</sup> 포함되어 寺格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대의 成典寺院에는 제외됨으로써<sup>33)</sup> 그 사이에 분황사의 사격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靈廟寺(靈妙寺)는 분황사가 창건된 1년 후인 635년(선덕왕 4)에 완성되었다. 영묘사는 전불시대 칠처가람 중의 하나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황사와 달리 중대의 성전사원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그 사격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영묘사에 대한 연구는 성전사원의 기능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sup>34)</sup> 그리고 사료 C-5에

31) 南東信, 앞의 논문, 1999, 82쪽. 그러나 분황사가 창건되기 전에 개원을 하면 그 의미가 반감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분황사가 창건된 이후에 개원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개원과 분황사의 창건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金垞永은 仁平으로의 개원은 乙祭의 유고로 인한 왕권의 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하였지만(金垞永, 앞의 논문, 2009, 543쪽 주 30) 참조, 636년(선덕왕 5) 봄 정월에 伊滄 水品을 上大等으로 삼았다는 기록을 통해서 적어도 올제는 이때까지 활동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32) 《삼국유사》 권3, 興法3, 阿道基羅.

33)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 상.

34) 신라 成典寺院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濱田耕策, <新羅の寺院成典と皇龍寺の歴史> 《學習院大學文學部研究年報》 28, 1981 : 李泳鎬, <新羅中代 王室寺院의 官司的 機能> 《韓國史研究》 43, 1983 : 蔡尙植, <新羅統一기의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 8, 1984 : 李泳鎬, <新羅 成典寺院의 成立>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4, 1993 : 尹善泰, <新羅의 成典寺院과 衿荷臣> 《韓國史研究》 108, 2000 : 尹善泰, <新羅 中代의 成典寺院과 國家儀禮>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3, 2002 : 黃尙周, <《三國史記》 記事와 寺址로 본 新羅 成典寺院의 數

서 良志가 영묘사의 丈六像을 조성할 때 성 안의 남녀가 다투어 진흙을 날랐다는 기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35)</sup> 이런 모습은 장육상을 조성할 때뿐만 아니라 영묘사를 창건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즉 영묘사를 창건할 때에도 많은 백성들이 力役に 동원되었으며,<sup>36)</sup> 또 이것은 당시 신라인들이 영묘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영묘사는 선덕왕과 개인적으로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서 주목되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E-1. ... 또 어느 날은 풀로 새끼를 꼬아 가지고 靈廟寺에 들어가서 金堂과 좌우에 있는 經樓와 南門의 廊廡를 둘러 묶고 剛司에게 말하기를 “이 새끼를 꼭 3일 후에 건어라”고 하였다. 강사가 이상히 여기면서 그대로 하였다. 과연 3일 만에 선덕왕이 행차하여 절에 오자 志鬼의 심중에서 불이 나와 그 탑을 태웠으나 오직 새끼로 둘러 맨 곳만은 (화재를) 면하였다. ... 37)

2. 志鬼는 신라 活里의 驛人이다. 선덕왕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사모하여 마음 졸이고 눈물 흘리다가 모습이 초췌해졌다. 왕이 절에 行香하려 갈 때 (이런 소문을) 듣고는 그를 불렀다. 지키는 절에 가 탑 아래서 왕의 행차를 기다렸는데, 홀연 깊은 잠이 들었

---

에 대한 疑問> 《新羅文化》 25, 2005 : 박남수, <眞殿寺院의 기원과 新羅 成典寺院의 성격> 《韓國思想史學》 41, 2012a 참조.

35) 김지현은 영묘사 불상은 문무왕대 백성의 참여 속에서 다시 제작되었다고 파악하였다(김지현, <《三國遺事》 義解 <良志使錫>條를 통해 본 良志의 작품과 활동 시기>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33, 2012, 167쪽).

36) 辛鍾遠은 錫杖寺址에서 출토된 ‘民貢’이라고 기록된 銘文瓦片을 바탕으로 영묘사를 창건할 때 백성들이 力役に 동원되었고, 더 나아가 양지가 간여한 사찰의 造營이 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파악하였다(신종원, <三國遺事 <良志使錫>條 譯註> 《古文化》 40·41, 1992 ; 《삼국유사 새로 읽기》 (2), 일지사, 2011, 64~65쪽).

37) 《삼국유사》 권4, 義解5 二惠同塵.

다. 왕이 팔찌를 벗어 지귀의 가슴에 놓아두고는 궁으로 돌아갔다. 후에 잠에서 깨어난 지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는데, 마음 속 불이 일어나 그 탑을 둘러싸더니 변하여 불귀신이 되었다. ... 38)

위의 사료 E-1·2는 영묘사와 관련된 선덕왕과 志鬼와 관련된 기록이다. 活里의 驛人이었던 지귀는 선덕왕을 사모하였는데,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마음 속에서 불이 일어나 영묘사의 탑을 불태웠다고 한다.<sup>39)</sup> 이러한 기록들은 통하여 아마도 선덕왕은 재위 기간 동안에 南山을<sup>40)</sup>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 행차를 하였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선덕왕은 영묘사를 포함하여 여러 사원에 行香 등 다양한 불교의례를 거행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행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영묘사에는 15세기 중후반 무렵까지 선덕왕의 眞影 또는 塑像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였다고 한다. 즉 成倪(1439~1504)은 <靈妙寺>라는<sup>41)</sup> 詩에서 ‘黃金大像 毗盧佛’과 ‘白玉嬌姿 女主身’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黃金大像 毗盧佛’은 良志가 만든 장육삼존상으로 764년(경덕왕 23)에 개금한 장육존상이었을 것이고, ‘白玉嬌姿 女主身’는 선덕왕을 지칭하였을 것이라고 한다.<sup>42)</sup> 결국 이와 같은 기록들을 통해서 선덕왕과 영묘사의 특별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묘사의 창건 이후에 선덕왕에 대한 神聖化 작업이 이루어

38) 《大東韻府群玉》 권20, 心火繞塔.

39) 엄기영은 지귀 설화는 문무왕 2년부터 8년 사이에 4차례나 발생한 영묘사 화재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고 추측하였다(엄기영, <志鬼 설화의 형성 배경과 역사적 의미> 《민족문화연구》 47, 2007, 33쪽).

40) 《삼국유사》 권1, 紀異2 太宗春秋公.

41) 《虛白堂詩集》 권5, 詩, 靈妙寺.

42) 박남수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영묘사는 선덕왕의 흥거 이후 그의 追福所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박남수, 앞의 논문, 2012a, 79~80쪽).

졌다. 즉 선덕왕의 ‘선덕’이라는 명칭은 역사상의 轉輪聖王인 아쇼카(Asoka)왕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덕왕은 중고왕실의 전통적인 전륜성왕의식을 계승하였으며, 자신은 아쇼카왕에 비정되었다.<sup>43)</sup>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彌勒佛 또는 미륵불의 출현을 전제로 한 전륜성왕이라거나,<sup>44)</sup> 또는 선덕왕의 지위는 현세의 부처로서 연화장세계의 노사나불에 배향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이해되기도 한다.<sup>45)</sup> 결국 이러한 사실은 선덕왕이 추진하였던 불교정책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료 D-1·2는 636년(선덕왕 5)에 실시되었던 百高座會(百座仁王經大會)와 度僧에 대한 기록이다.<sup>46)</sup> 이 기록은 선덕왕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백고좌강회와 도승을 실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47)</sup> 그러나 신라에서는 선덕왕대 이전에도 도승을 실시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F-1. 숨을 내려 殺生을 금지시켰다.<sup>48)</sup>

43) 南東信, <慈藏의 佛教思想과 佛教治國策> 《韓國史研究》 76, 1992, 28~30쪽. 한편 廉仲燮도 선덕왕의 전륜성왕인 인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廉仲燮, <善德王의 轉輪聖王적인 측면 고찰> 《史學研究》 93, 2009, 16~28쪽).

44) 김준영, 앞의 논문, 2009, 549~550쪽.

45) 朴南守, <新羅 眞殿寺院의 조영과 그 思想的 背景> 《新羅文化》 40, 2012b, 62~65쪽.

46) 김복순은 사료 D-1·2의 기록은 같은 법회의 다른 기록으로 파악하였다(김복순, <신라의 백고좌법회> 《新羅文化》 36, 2010, 88쪽).

47) 李基白, <三國時代 佛教 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 《歷史學報》 6, 1954;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28쪽; 吉基泰, <百濟 泗泚期の 佛教政策과 度僧> 《百濟研究》 41, 2005, 102~105쪽; 呂聖九, <신라인의 출가와 도승> 《震檀學報》 101, 2006, 81~82쪽.

48)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법흥왕 16년.

2. 처음으로 十齋日을 시행하여 살생을 금하였으며, 俗人이 출가하여 僧尼가 됨을 허락하였다.<sup>49)</sup>
3. 법흥왕은 이미 폐지된 (불교를) 일으켜 절을 세우고, 절이 낙성되자 면류관을 벗고 가사[方袍]를 입었으며, 궁중의 친척들을 내놓아[布施] 절의 종으로 삼았다. ... 그 절의 주지가 되어 몸소 불교를 널리 폈다.<sup>50)</sup>
4. 공사를 다 마치자 왕은 왕위를 사양하고 스님이 되어 이름을 法空이라 고치고, 三衣와 瓦鉢만을 생각하였다.<sup>51)</sup>

G-1. ... 伯父 법흥왕의 뜻을 흠모하여 일념으로 불교를 받들어 널리 佛寺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제도하여 승려가 되게 하였다. ...<sup>52)</sup>  
 2 3월에 사람들이 출가하여 승려가 되어 불교를 받드는 것을 허락하였다.<sup>53)</sup>

위의 사료는 선덕왕대 이전인 법흥왕과 진흥왕대의 도승에 대한 기록이다.<sup>54)</sup> 도승은 ‘得度爲僧’의 줄인 말로써 국가에서 出家를 허용하여 승려가 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sup>55)</sup> 백제와 신라는 모두 사원을 창건한 이후에 도승을 실시하였기<sup>56)</sup> 때문에 도승은 創寺 후에 실시하였고,<sup>57)</sup> 또 호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sup>58)</sup> 따라서 일반적

49) 《삼국유사》 권1, 王曆1 第二十三法興王.

50) 《삼국유사》 권3, 興法3 原宗興法 厭濁滅身.

51) 《海東高僧傳》 권1, 法空.

52) 《삼국유사》 권3, 塔像4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

53)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5년 3월.

54) 度僧에 대한 연구성과는 吉基泰, 앞의 논문, 2005 : 呂聖九, 앞의 논문, 2006 : 조원숙, <신라의 度僧 시행> 《新羅史學報》 19, 2010 참조.

55) 金煥泰, <朝鮮前期의 度僧 및 赴役僧 문제> 《佛敎學報》 32, 1995, 2~5쪽.

56)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침류왕 2년 봄 정월 및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5년 3월.

57) 吉基泰, 앞의 논문, 2005, 102쪽 : 呂聖九, 앞의 논문, 2006, 81~82쪽.

58) 李基白, 앞의 논문, 1954 ; 앞의 책, 1986, 28쪽.

으로 신라에서 도승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544년(진흥왕 5)으로 이해하고 있다.<sup>59)</sup>

그러나 도승은 불교가 공인된 법흥왕대에 이미 실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위의 사료 F-3의 ‘궁중의 친척들을 내놓아 절의 종으로 삼았다[施宮戚爲寺隸]’라는 기록을 참조하면<sup>60)</sup> 아마도 법흥왕이捨身이나 出家할 때 그를 따르는 일정한 인원을 도승시켜서 함께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승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진평왕대에도 도승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H-1. 가을 7월에 隋의 사신 王世儀가 皇龍寺에 이르자 百高座會를 열었는데, 圓光 등의 法師를 맞이하여 불경을 강설하였다.<sup>61)</sup>
2. 建福 30년 癸酉<즉 진평왕 즉위 35년이다> 가을에 隋의 사신 王世儀가 오자 皇龍寺에서 百座道場을 개설하고, 여러 고승을 청하여 불경을 강의하는데, 圓光이 가장 윗자리[上首]에 있었다.<sup>62)</sup>
3. 진평왕 35년에 皇龍寺에서 百高座를 설치하고 比丘를 맞아다가 講經을 하였는데, 師가 上首가 되었다.<sup>63)</sup>

위의 사료는 613년(진평왕 35)에 隋의 사신 王世儀을 위하여 皇龍寺에서 百高座會를 열었고, 원광 등이 불경을 강설하였다는 기록이다. 진평왕은 고구려가 자주 신라를 침입하자 608년에 원광으로 하여

59) 吉基泰, 앞의 논문, 2005, 102쪽; 呂聖九, 앞의 논문, 2006, 81~82쪽. 한편 조원숙은 진정한 도승의 시작은 선덕왕 시기라고 파악하였다(조원숙, 앞의 논문, 2010, 10~11쪽 주 10) 참조).

60) 신선혜는 법흥왕대 度僧의 실시를 국가에 의한 僧團의 확산과 정비의 노력으로 파악하였다(신선혜, <신라의 불교 전래와 교단의 확립> 《불교연구》 33, 2010, 184쪽).

61)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35년 가을 7월.

62) 《삼국유사》 권4, 義解5 圓光西學.

63) 《海東高僧傳》 권2, 圓光傳.

금 수에 <乞師表>를 짓게 하였고, 611년에도 수에 사신을 파견하여 군사를 청하는 表를 올려 수 煬帝가 이것을 허락하였다.<sup>64)</sup> 그러나 수에 대한 신라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612년 수 양제의 고구려 침입은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613년에 수의 사신으로 왕세의가 신라에 파견되었다. 그가 온 목적은 결국 수가 고구려를 침공하는데 필요한 군사적인 협조나 도움을 신라에게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백고좌회는 《仁王經》을 강독하는 법회이기 때문에 仁王會 또는 仁王道場이라고도 하였는데, 특히 이 법회는 신라에서 《인왕경》 신앙의 최초의 집회이다.<sup>65)</sup> 따라서 이때 열렸던 백고좌회는 역시 호국적인 성격이었고,<sup>66)</sup> 원광 등이 강설하였던 불경은 백고좌회의 성격상 당연히 《인왕경》이었을 것으로<sup>67)</sup>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도승의 실시된 배경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가 담겨 있다는 연구성과를 참조하면,<sup>68)</sup> 비록 기록에는 없지만 이때 도승도 함께 이루어졌을

64)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30년 및 33년.

65) 李箕永, <仁王般若經과 護國佛教 -그 本質과 歷史的 展開-> 《東洋學》 5, 1975 ; 《韓國佛教研究》, 韓國佛教研究院, 1982, 174~177쪽.

66) 李基白, <皇龍寺와 그 創建> 《新羅時代의 國家佛教와 儒教》, 韓國研究院, 1978 ; 앞의 책, 1986, 52~55쪽.

67) 김복순은 신라에서 《인왕경》을 강설하는 호국법회를 개설한 것은 天台 智顓의 영향을 받은 陳과 隋에 유학하였던 승려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고(김복순, <수·당의 교체 정국과 신라 불교계의 추이> 《韓國古代史研究》 43, 2006 ; 《新思潮로서의 신라 불교와 왕권》, 景仁文化社, 2008, 42~46쪽), 613년 황룡사의 백고좌회에서 《인왕경》의 강경의식에는 圓光과 함께 安曇이 가장 크게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다(김복순, <원광법사의 행적에 관한 종합적 고찰> 《新羅文化》 28, 2006 ; 앞의 책, 2008, 46쪽 및 88쪽). 한편 박대남도 수 유학승들이 백고좌회 행사를 주도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박대남, 앞의 논문, 2009, 77쪽).

68) 吉基泰, 앞의 논문, 2005, 98쪽.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면 신라에서는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부터 도승이 실시되어 진흥왕과 진평왕 그리고 선덕왕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덕왕대 후기의 불교정책은 창사와 건탑, 그리고 도승의 실시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I-1. 《國史》에 이르기를 “진흥왕 太靑 3년 己巳에 梁에서 沈湖를 시켜 舍利 몇 날을 보내왔다. 선덕왕 때인 貞觀 17년 癸卯에 慈藏法師가 (唐에서) 가지고 온 부처님의 頭骨과 어금니와 佛舍利 1백 날과 부처님이 입던 붉은 김에 金點이 있는 袈裟 한 벌이 있었는데, 그 사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은 皇龍塔에 두고, 한 부분은 太和(寺) 탑에 두고, 한 부분은 가사와 함께 通度寺 戒壇에 두었으며, 그 나머지는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 69)

2. ... 머리를 깎고 도를 구하는 이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많아지니 이에 通度寺를 창건하여 戒壇을 쌓고 사망에서 오는 사람들을 제도하였다<계단에 대한 일은 이미 위에 나와 있다>. ... 70)

J-1. 3월에 皇龍寺塔을 창건하였는데, 이것은 慈藏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sup>71)</sup>

2. ... 貞觀 17년 癸卯 16일에 (자장법사는) 당 황제가 준 불경·불상·가사·폐백 등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탑 세울 일을 왕에게 아뢰었다. 선덕왕이 여러 신하에게 문의하니, 여러 신라들이 아뢰기를 “工匠을 백제에 청해야 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보물과 비단으로써 백제에 청하였다. 阿非知라는 장인이 명을 받고 와서 목재와 석재를 경영하고, 伊干 龍春<또는 龍樹라고도 한다>이 그 일을 주관하였는데, 거느린 小匠이 2백 명이나 되었다.

69) 《삼국유사》 권3, 塔像4, 前後所將舍利.

70) 《삼국유사》 권4, 義解5, 慈藏定律.

7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4년 3월.

… 또 海東의 名賢 安弘이 지은 《東都成立記》의 기록에 “신라 제27대에 女王이 임금이 되니 비록 도리는 있으나 위엄이 없으므로 9韓이 침범하게 되었다. 만약 龍宮 남쪽 皇龍寺에 9층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의 재앙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니, 제1층은 日本, 제2층은 中華, 제3층은 吳越, 제4층은 托羅, 제5층은 鷹遊, 제6층은 靺鞨, 제7층은 丹國, 제8층은 女狄, 제9층은 穢貊이라 하였다. … 또 《國史》와 절의 古記를 살펴보면 “진흥왕 14년 癸酉에 그 절을 세운 후에 선덕왕 때인 貞觀 19년 乙巳에 탑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 72)

K-1. … 貞觀 17년 癸卯에 본국의 선덕왕이 글을 올려 돌려보내주기를 청하니, (태종은) 이를 허락하고 (자장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비단 1領과 채색 비단 500端을 하사하였으며, 東宮도 200단을 내려주고, 그밖에도 예물로 준 물건이 많았다. 자장은 본국에 아직 불경과 불상이 구비되지 못하였으므로 《大藏經》 1부와 여러 가지 幡幢·花蓋 등에 이르기까지 福利가 될 만한 것을 청해서 모두 싣고 돌아왔다. (본국에) 이르자 온 나라가 (그를) 환영하였다. (왕이) 명하여 芬皇寺<《唐傳》에서는 王芬寺라고 하였다>에 있게 하니 모든 대우가 넉넉하였다. … 73)

2. … 고향에 도착하자 온 나라가 (慈藏을) 환영하였고, 이에 一代의 불법이 뚜렷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왕은 자장이 대국에서 크게 우러러 보았으며, 정교를 널리 지니고 있는 스님이므로 그가 綱理하지 않으면 불법의 汚濁을 숙청할 길이 없다 하여 마침내 慈藏을 大國統으로 삼고 王芬寺에 주석하게 하였다. 이 절은 곧 왕이 지은 절이다. 그 후 다시 따로 精院을 건축하고 특별히 10명에게 度牒을 내려 주어 항상 자장스님을 모시고 시중을 들게 하였다. … 74)

위의 사료는 通度寺의 창건과 皇龍寺에 九層木塔의 건립, 그리고 度牒을 내려주었다는 기록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선덕왕대 후기

72) 《삼국유사》 권3, 塔像4, 皇龍寺九層塔.

73) 《삼국유사》 권4, 義解5, 慈藏定律.

74) 《續高僧傳》 권24, 唐新羅國大僧統釋慈藏傳.

의 불교정책은 慈藏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위의 사료 I는 자장이 통도사에 戒壇을 설치하여 佛舍利를 봉안하였고, 사료 J는 자장의 건의로 皇龍寺九層木塔이 건립되었으며, 사료 K는 唐에서 귀국한 자장을 위하여 度牒을 내려주었다는 기록이다.

신라는 642년(선덕왕 11) 백제 의자왕의 침입으로 서쪽 변경의 전략적 요충지인 大耶城이 함락되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였다. 선덕왕은 唐에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을 요청함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당 태종의 ‘女主不能善理’로 더 큰 곤궁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덕왕은 불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였다.<sup>75)</sup>

선덕왕대 후기에 추진되었던 불교정책은 황룡사구층목탑의<sup>76)</sup> 건립이 대표적인데, 이 과정에서 慈藏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sup>77)</sup> 황룡사구층탑을 건립한 목적은 대야성의 함락 이후에 신라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sup>78)</sup> 그로 말미암아 실추된 왕실과 女主의 권위를 회복하며, 아울러 왕권의 강화와 국력의 신장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졌다.<sup>79)</sup>

75) 이에 대한 연구는 金德原, 앞의 책, 2007, 206~209쪽 참조.

76) 황룡사구층목탑에 대한 연구성과는 양정식, 《皇龍寺의 造營과 王權》, 서경, 2004, 154~157쪽; 최희준, <《三國遺事》 皇龍寺九層木塔條에 대한 재검토와 阿非의 출자> 《한국학논총》 36, 2011, 29쪽 주 1) 참조; 허인욱, <《三國遺事》 皇龍寺九層塔條의 編年 검토> 《사학연구》 113, 2014, 4쪽 주 2) 참조.

77) 辛鍾遠은 황룡사구층탑의 건립을 安弘이 처음 주장한 것으로 파악하였다(辛鍾遠, <安弘과 新羅佛國土說>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1992, 244쪽). 한편 朴淳敎는 자장이 황룡사구층탑을 건립하려고 하였던 것은 唐에서 가져온 佛舍利의 거국적인 봉안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하였다(朴淳敎, 앞의 논문, 1999, 150쪽).

78) 朴南守, <統一主導勢力의 形成과 政治改革> 《統一期の 新羅社會 研究》,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87; 《신라 화백제도와 화랑도》, 주류성, 2013.

한편 선덕왕대 후기에도 불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도승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위의 사료 K와 같이 자장이 당에서 귀국하였을 때 선덕왕은 10명에게 度牒을 내려서 자장을 수행하게 하였다. 자장은 신라가 백제의 침입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하였을 때 선덕왕의 요청으로 귀국하였다.<sup>80)</sup> 자장은 당 황실과 돈독한 유대를 맺고 있었는데, 백제의 침입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은 신라는 당의 도움이 필요하였고, 당 태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자장의 존재가 절실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장과 당 황실과의 관계를 주목하였던 김춘추는 자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선덕왕에게 자장의 귀국을 요청하였을 것이다.<sup>81)</sup>

따라서 자장이 귀국하였을 때 선덕왕이 그를 수행하기 위하여 10명에게 도첩을 내린 것도 당시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일종의 호국적인 성격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10명에게 도첩을 내린 것은 일종의 도승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선덕왕 초기에 실시하였던 도승이 계속해서 유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9) 李基白, 앞의 논문, 1978 ; 앞의 책, 1986 : 金相鉉, <皇龍寺九層塔考> 《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歷史學篇-, 1992 ; 《신라의 사상과 문화》, 一志社, 1999 : 南東信, 앞의 논문, 1992 : 文暲鉉, <弑王說과 善德女王> 《白山學報》 52, 1999 : 김기홍, 《천년의 왕국 신라》, 창작과비평사, 2000.

80) 《삼국유사》 권4, 義解5 慈藏定律.

81) 金德原, 앞의 책, 2007, 206쪽.

### Ⅲ. 승려들의 활동과 새로운 불교사상의 수용

선덕왕대에는 활발한 불교정책의 영향으로 다른 시대보다도 많은 승려들이 활동하였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불교사상이 수용되었다. 여기에서는 선덕왕대 활동하였던 승려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한다.<sup>82)</sup>

선덕왕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가장 대표적인 승려는 慈藏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638년(선덕왕 7)에 佛法을 배우러 당에 들어갔다(가<sup>83)</sup>) 643년(선덕왕 12)에 선덕왕의 요청으로 귀국하였다. 선덕왕은 자장에게 예를 다하여 최고의 대우를 하여 분황사에 주석케 하였고, 이후 大國統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자장은 선덕왕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당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장의 활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sup>84)</sup> 하나는 황룡사구층목탑의 건립이고, 또 다른 하나는 戒律을 강조하여<sup>85)</sup> 불교 교단을 정비한 것이다.<sup>86)</sup> 특히 자장은 佛國土說의 제시와 같은 佛敎治國策을<sup>87)</sup>

82) 물론 이들 승려들 모두가 선덕왕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83) 金杜珍, <慈藏의 文殊信仰과 戒律> 《韓國學論叢》 12, 1989, 6쪽 : 南東信, 앞의 논문, 1992, 10쪽 : 남무희, <자장의 생애 복원> 《한국학논총》 32, 2009 ; 《신라 자장 연구》, 서경문화사, 2012, 33쪽 : 박미선, <‘慈藏定律’조로 본 자장의 생애와 ‘定律’의 의미>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3, 2012, 86쪽. 한편 金英美는 자장의 입당 시기를 확정지을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金英美, <慈藏의 佛國土思想> 《韓國史市民講座》 10, 1992, 5쪽).

84) 자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唐의 衣冠과 正朔의 수용은 진덕왕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85) 金杜珍은 자장의 ‘定律’은 계율을 定立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戒를 生活化시켰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하였다(金杜珍, 앞의 논문, 1989, 12쪽).

86) 김영미, <신라 中古期 三綱制의 시행과 그 기능 -慈藏의 활동과 관련된

실시함으로써 大耶城의 함락과 ‘女主不能善理’로 야기된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선덕왕대의 대표적인 승려 중에서 密本의 활동도 주목된다. 그는 선덕왕이 병이 들었을 때 왕을 치료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L. 선덕왕 德曼이 병이 든 지 오래되었다. 興輪寺의 僧 法揚이 왕명에 의하여 병을 돌보았으나 오랫동안 효험이 없었다. 이때 密本法師가 德行으로 나라 안에 알려져 있었으므로 좌우에게 그를 대신하기를 청하였다. 왕의 명령으로 (그를) 궁 안으로 맞아들이니, 밀본은 왕의 침실 밖에서 《藥師經》의 두루마리를 겨우 다 읽자 (그가) 가지고 있던 육환장[六環]이 침실로 날아 들어가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칙을 찢러 뜯 아래로 거꾸로 뜨리니 왕의 병이 곧 나았다. 이때에 밀본의 머리 위에 오색의 신비한 빛이 발하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 88)

위의 기록은 앞의 사료 D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선덕왕은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황룡사에서 백고좌회를 열어 승려를 모아 《인왕경》을 강론케 하고 100명을 도승시켰다. 그리고 興輪寺의 승 法揚이 선덕왕의 병을 돌보았지만 오랫동안 효험이 없었다. 그때 德行이 높아서 그 명성이 나라 안에 알려져 있던 密本이 《藥師經》으로 선덕왕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 또 그는 나중에 丞相이 되었던 金良圖가 어렸을 때 귀신들린 병에 걸렸는데, 역시 《약사경》으로<sup>89)</sup> 고쳐주었다.

여-> 《韓國古代史研究》 72, 2013 참조.

87) 南東信, 앞의 논문, 1992 : 辛鍾遠, 앞의 논문, 1996 ; 앞의 책, 2004. 한편 자장의 사상에 대한 연구성과는 張志勳, 앞의 논문, 1999, 52쪽 참조.

88) 《삼국유사》 권5, 神呪6 密本摧邪.

89) 기록에는 ‘經’이라고만 되어있는데, 《藥師經》이라고 생각한다.

자장과 밀본 외에도 선덕왕대에 활동하였던 승려들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영묘사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 본 良志와 또 淨土信仰으로 활동하였던 惠空,<sup>90)</sup> 그리고 자장의 조카이며 神印宗의 開祖인 明朗<sup>91)</sup>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승려들의 활동은 결국 선덕왕대에 새로운 불교사상의 수용 등과 같은 佛事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장은 大國統이 되어 戒律을 통하여 불교 교단을 정비하였다.<sup>92)</sup> 삼국시대 신라 승려들의 계율에 대한 연구는 소승계인 《四分律》에 집중되었는데,<sup>93)</sup> 자장 역시 《사분율》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는 《사분율》에 근거하여 교단을 숙청하고 승려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계율을 제정하였다.<sup>94)</sup> 또한 자장은 황룡사에서 菩薩戒本을 강연하였는데,<sup>95)</sup> 이때의 보살계본은 대승계인 《梵網經》 계통으로 이해하고 있다.<sup>96)</sup> 이와 같이 계율을 중심으로 불교 교단을 정비하였기 때문에 그를 戒律宗의 開祖로도<sup>97)</sup> 이해하기도 한다.

惠空은 惠宿과 더불어 신라 중고기에 阿彌陀信仰을 중심으로 한 淨土信仰의 활동으로 주목되고,<sup>98)</sup> 또 興輪寺 金堂의 十聖으로 추앙

90) 《삼국유사》 권4, 義解5 二惠同塵.

91) 《삼국유사》 권5, 神呪6 明朗神印.

92) 張志勳은 慈藏을 大國統으로 삼아 신라불교를 총괄케 한 것은 密教思想을 당시의 국가적 이념으로 확립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張志勳, 앞의 논문, 1999, 72쪽).

93) 崔源植, <新羅의 菩薩戒 受容과 그 流布> 《國史館叢書》 29, 1991; 《新羅菩薩戒思想史研究》, 民族社, 1999, 36쪽.

94) 南東信, <慈藏定律과 四分律> 《佛敎文化研究》 4, 1995.

95) 《삼국유사》 권4, 義解5 慈藏定律.

96) 蔡印幻, 《新羅佛敎戒律思想研究》, 國書刊行會, 1977, 259쪽.

97) 金映遂, <五敎兩宗에 對하여> 《震檀學報》 8, 1937; 李英茂, <新羅佛敎의 文化思想史的 考察 (1) -五敎를 中心으로-> 《建大史學》 2, 1972; 《韓國의 佛敎思想》, 민족문화사, 1987.

되어 塑像이 봉안되었다.<sup>99)</sup> 특히 혜공은 元曉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M. (惠空은) 말년에는 恒沙寺<지금의 迎日縣 吾魚寺이다. 민간에 전하기는 恒河[恒]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출세하였으므로 恒沙洞이라 한다>로 옮겨 살았다. 이때 元曉가 여러 經典의 註解를 찬술하면서 매번 스님에게 가서 의심나는 것을 묻고 혹은 서로 농담도 하였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시냇가에서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고 돌바닥 위에 똥을 누웠다. 혜공이 이것을 가리켜서 장난말로 말하기를 “그대가 눈 똥은 내가 잡은 물고기이다”고 하였으므로 (이 절을) 吾魚寺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원효의 말이라고 하나 잘못이다. 世間에서는 그 시내를 잘못 불러 芴矣川이라고 한다.<sup>100)</sup>

위의 사료는 원효의 거침이 없고 구애됨이 없는 활달한 행동과<sup>101)</sup> 더불어 혜공과 원효의 긴밀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기록이다. 즉 원효는 경전의 註解를 찬술하면서 의심나는 것은 매번 혜공에게 물었고,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그는 원효의 선배나 스승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원효는 정도신앙을 중심으로 ‘無碍行’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수행방법을 강조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大衆教化를 전개하여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도 ‘南無阿彌陀佛’을 알게 되었다.<sup>102)</sup> 이러

98) 惠宿과 惠空에 대한 연구성과는 신선혜, <《三國遺事》 ‘二惠同塵’조와 신라 중고기 불교계>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3, 2012, 216쪽 주 2) 참조.

99) 《삼국유사》 권3, 興法3 東京興輪寺金堂十聖.

100) 《삼국유사》 권4, 義解5 二惠同塵.

101) 金德原, <元曉와 義湘의 女性觀에 대한 考察> 《韓國史學報》 33, 2008b, 56쪽.

102) 《삼국유사》 권4, 義解5 元曉不羈..

한 정도신앙을 바탕으로 한 불교대중화의 흐름은 해숙에서부터 시작되어 해공과 大安을<sup>103)</sup> 거쳐서 원효에 이르러서 완성된 것으로<sup>104)</sup> 이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덕왕대에는 다양한 불교사상이 수용되면서 교단이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약사경》을 바탕으로 선덕왕의 병을 치유하였던 밀본은 密敎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sup>105)</sup> 신라의 밀교는 선덕왕대 이전부터 존재하였는데, 선덕왕대에 새롭게 발전하였던 것으로<sup>106)</sup> 이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장의 조카인 明朗은 문무왕대에 文豆婁秘法으로 唐軍의 침입을 물리쳤으며,<sup>107)</sup> 이후 神印宗의 시조가 되었다.<sup>108)</sup>

한편 선덕왕대 法朗에 의해 禪宗이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崔致遠의 <智證大師碑>에는 법랑이 중국 선종

103) 《宋高僧傳》 권4, 唐新羅國黃龍寺元曉.

104) 金煥泰, <新羅 佛教大衆化의 歷史와 그 思想研究> 《佛敎學報》 6, 1968 ; 《新羅佛敎研究》, 民族文化社, 1987, 116~122쪽 ; 신선혜, 앞의 논문, 2012, 227쪽.

105) 密本에 대한 연구성과는 曹元榮, <新羅 中古期 佛敎의 密敎의 性格과 <藥師經>> 《釜大史學》 23, 1999 : 옥나영, <<관정경>과 7세기 신라 밀교> 《역사와 현실》 63, 2007 : 김연민, <密本の <藥師經> 신앙과 그 의미> 《韓國古代史研究》 65, 2012 참조.

106) 張志勳, 앞의 논문, 1999, 69쪽.

107) 《삼국유사》 권2, 紀異2 文虎王法敏 ; 同 권5, 神呪6 明朗神印. 한편 이에 대한 연구는 李相勳, <羅唐戰爭期 文豆婁秘法과 海戰> 《新羅文化》 37, 2011 ;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참조.

108) 明朗과 神印宗에 대한 연구성과는 文明大, <新羅 神印宗의 研究 -新羅 密敎와 統一新羅社會-> 《震檀學報》 41, 1976 : 조원영, <新羅 中代 神印宗의 成立과 그 美術> 《釜山史學》 40·41, 2001 : 金淵敏, <新羅 文武王代 明朗의 密敎思想과 의미> 《韓國學論叢》 30, 2008 : 김복순, <<삼국유사> ‘명랑신인’조의 구성과 신인종 성립의 문제>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2, 2011 참조.

의 제4조 道信(580~651)의 제자로 기록되었다.<sup>109)</sup> 그가 신라로 돌아온 시기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그의 귀국은 이후 신라의 선종 발전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sup>110)</sup> 이와 관련하여 신라에서는 선덕왕대부터 茶가 있었는데,<sup>111)</sup> 이것은 법랑의 귀국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법랑이 선덕왕대에 귀국하면서 차를 가지고 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선덕왕대에는 여러 가지의 불교정책들이 실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선덕왕대의 불교정책은 불교와 관련된 기록이 없는 진덕왕대와 구별할 수 있을 만큼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sup>112)</sup> 따라서 선덕왕대 불교정책은 중고기 왕실을 중심으로 추진된 불교정책이 마지막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敎學佛敎가 발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던 일종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시기라는데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진덕왕대에는 선덕왕대와는 달리 불교에 대한 기록 대신에 유교와 관련된 기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정국운영을 주도하는 세력의 정치적인 이해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金春秋를 중심으로 한 舍輪系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13)</sup>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이후 유교적인 정치이념을 추구하였던 신라 中代의 모습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109)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財)駕洛國史蹟開發院, 1992, 183~184쪽.

110) 崔柄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崔致遠의 四山碑銘을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7, 1972, 88쪽.

111)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흥덕왕 3년.

112) 金德原, 앞의 책, 2007, 219~220쪽.

113) 金德原, 앞의 책, 2007, 244~245쪽.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신라 선덕왕대의 불교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선덕왕은 즉위과정에서 제기된 ‘여왕’에 대한 문제를 불교정책을 추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선덕왕대의 불교정책은 크게 사원의 창건과 건립을 비롯한 佛事활동과 승려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불교사상의 수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덕왕대의 불교에 대한 기록은 대체로 즉위 초기와 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642년(선덕왕 11)을 기준으로 크게 초기와 후기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선덕왕대 초기의 불교정책은 芬皇寺와 靈廟寺(靈妙寺)의 창건과 皇龍寺에서 百高座會를 개최하여 《仁王經》을 강론하였고, 또 度僧을 실시하였다. 분황사는 ‘여왕’인 선덕왕과 관련되어 창건된 사원이었고, 또 선덕왕대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영묘사의 창건 이후에 선덕왕에 대한 神聖化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선덕왕이 추진하였던 불교정책이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승은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부터 실시되어 진흥왕과 진평왕 그리고 선덕왕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덕왕대 후기의 불교정책은 通度寺의 창건과 皇龍寺九層木塔을 건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慈藏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황룡사구층목탑을 건립한 목적은 대야성의 함락 이후에 신라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실추된 왕실과 女主의 권위를 회복하며, 아울러 왕권의 강화와 국력의 신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한편 선덕왕은 자장이 唐에서 귀국하였을 때 10명에게 度牒을 내렸는데, 이것은 일종의 도승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선덕왕대에는 활발한 불교정책의 영향으로 다른 시대보다도 많은 승려들이 활동하였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불교사상이 수용되었다. 선덕왕대에 활동하였던 가장 대표적인 승려는 慈藏이다. 자장의 활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황룡사구층목탑의 건립이고, 또 다른 하나는 戒律을 강조하여 불교 교단을 정비한 것이다. 또한 密本의 활동도 주목되는데, 그는 선덕왕이 병이 들었을 때 왕을 치료하였다. 이 외에도 영묘사와 관련하여 良志와 또 淨土信仰으로 활동하였던 惠空과 元曉, 그리고 자장의 조카이며 神印宗의 開祖인 明朗 등이 있다.

선덕왕대는 승려들의 활발한 활동의 결과로 새로운 불교사상의 수용되면서 교단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장은 大國統이 되어 《四分律》과 《梵網經》 등의 戒律을 중심으로 불교 교단을 정비하였기 때문에 戒律宗의 開祖로도 이해하기도 한다. 그리고 惠空은 惠宿과 더불어 신라 중고기에 阿彌陀信仰을 중심으로 한 淨土信仰의 활동으로 주목된다. 또한 元曉는 정토신앙을 중심으로 ‘無碍行’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수행방법을 강조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大衆教化를 전개하였다.

이 외에도 《약사경》을 바탕으로 선덕왕의 병을 치유하였던 밀본은 密敎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자장의 조카인 明朗은 문무왕대에 文豆婁秘法으로 唐軍의 침입을 물리쳤으며, 이후 神印宗의 시조가 되었다. 한편 선덕왕대 法朗에 의해 禪宗이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선덕왕대부터 茶가 있었

는데, 이것은 법랑의 귀국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법랑이 선덕왕대에 귀국하면서 차를 가지고 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

선덕왕대의 불교정책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선덕왕대의 불교정책은 불교와 관련된 기록이 없는 진덕왕대와 구별할 수 있을 만큼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덕왕대 불교정책은 중고기 왕실을 중심으로 추진된 불교정책이 마지막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敎學佛敎가 발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던 일종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시기라는데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진덕왕대에는 선덕왕대와는 달리 불교에 대한 기록 대신에 유교와 관련된 기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정국운영을 주도하는 세력의 정치적인 이해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金春秋를 중심으로 한 舍輪系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이후 유교적인 정치이념을 추구하였던 신라 中代의 모습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I. 史料

《三國史記》，《三國遺事》，《續高僧傳》，《宋高僧傳》，《海東高僧傳》，  
《大東韻府群玉》，《虛白堂詩集》

### II. 著書

- 慶州文化宣揚會,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0, 1999  
金德原, 《新羅中古政治史研究》, 景仁文化社, 2007  
김기흥, 《천년의 왕국 신라》, 창작과비평사, 2000  
김복순, 《新思潮로서의 신라 불교와 왕권》, 景仁文化社, 2008  
김상현, 《신라의 사상과 문화》, 一志社, 1999  
金煥泰, 《新羅佛敎研究》, 民族文化社, 1987  
남무희, 《신라 자장 연구》, 서경문화사, 2012  
박남수, 《신라 화백제도와 화랑도》, 주류성, 2013  
辛鍾遠,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1992  
辛鍾遠, 《삼국유사 새로 읽기》 (1), 일지사, 2004  
신종원, 《삼국유사 새로 읽기》 (2), 일지사, 2011  
양정석, 《皇龍寺의 造營과 王權》, 서경, 2004  
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李箕永, 《韓國佛敎研究》, 韓國佛敎研究院, 1982  
李相勳,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李英茂, 《韓國의 佛敎思想》, 민족문화사, 1987  
진성규·이인철, 《신라의 불교사원》, 백산자료원, 2003  
蔡印玄, 《新羅佛敎戒律思想研究》, 國書刊行會, 1977  
崔源植, 《新羅菩薩戒思想史研究》, 民族社, 1999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財)駕洛國史蹟開發院,  
1992

### Ⅲ. 論文

- 金德原, <金龍春의 生涯와 活動> 《明知史論》 11·12, 2000
- 金德原, <新羅 眞德王代 金春秋의 對唐外交와 官制整備> 《新羅文化》 29, 2007
- 金德原, <신라 中古期 叛亂의 原因과 성격> 《民族文化論叢》 38, 2008
- 金德原, <元曉와 義湘의 女性觀에 대한 考察> 《韓國史學報》 33, 2008
- 金杜珍, <慈藏의 文殊信仰과 戒律> 《韓國學論叢》 12, 1989
- 金相鉉, <皇龍寺九層塔考> 《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 -歷史學篇-, 1992
- 金英美, <慈藏의 佛國土思想> 《韓國史市民講座》 10, 1992
- 김영미, <신라 中古期 三綱制의 시행과 그 기능 -慈藏의 활동과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研究》 72, 2013
- 金映遂, <五教兩宗에 對하여> 《震檀學報》 8, 1937
- 金煥泰, <新羅 佛教大衆化의 歷史와 그 思想研究> 《佛敎學報》 6, 1968
- 金煥泰, <朝鮮前期의 度僧 및 赴役僧 문제> 《佛敎學報》 32, 1995
- 金煥泰, <芬皇寺와 元曉의 관계史的 考察> 《元曉學研究》 1, 1996
- 金竣永, <芬皇寺의 창건시기와 배경에 대한 재검토> 《民族文化論叢》 42, 2009
- 吉基泰, <百濟 泗泚期의 佛教政策과 度僧> 《百濟研究》 41, 2005
- 김병곤, <신라 중대로의 전환기 알천의 역할과 위상> 《新羅文化》 40, 2012
- 김복순, <수·당의 교체 정국과 신라 불교계의 추이> 《韓國古代史研究》 43, 2006
- 김복순, <원광법사의 행적에 관한 종합적 고찰> 《新羅文化》 28, 2006
- 김복순, <신라의 백고좌법회> 《新羅文化》 36, 2010
- 김복순, <《삼국유사》 ‘명당신인’조의 구성과 신인종 성립의 문제>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2, 2011
- 김선주, <선덕여왕의 즉위 배경과 통치적 특징> 《패미니즘연구》 제9권 2호, 2009
- 金淵敏, <新羅 文武王代 明朗의 密敎思想과 의미> 《韓國學論叢》 30, 2008
- 김연민, <密本の 《藥師經》 신앙과 그 의미> 《韓國古代史研究》 65, 2012
- 김지현, <《三國遺事》 義解 良志使錫條를 통해 본 良志의 작품과 활동 시기>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33, 2012

南東信, <慈藏의 佛教思想과 佛教治國策> 《韓國史研究》 76, 1992

南東信, <慈藏定律과 四分律> 《佛教文化研究》 4, 1995.

南東信, <元曉와 芬皇寺 關係의 史的 考察>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0, 1999

남무희, <자장의 생애 복원> 《한국학논총》 32, 2009

李英茂, <新羅佛敎의 文化思想史의 考察 (1) -五敎를 中心으로-> 《建大史學》 2, 1972

文暲鉉, <弑王說과 善德女王> 《白山學報》 52, 1999

文明大, <新羅 神印宗의 研究 -新羅密敎와 統一新羅社會-> 《震檀學報》 41, 1976

朴南守, <統一主導勢力의 形成과 政治改革> 《統一期の 新羅社會 研究》,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87

朴南守, <新羅 眞殿寺院의 조영과 그 思想的 背景> 《新羅文化》 40, 2012

박남수, <眞殿寺院의 기원과 新羅 成典寺院의 성격> 《韓國思想史學》 41, 2012

박대남, <사찰구조와 출토유물로 본 芬皇寺 성격 고찰> 《韓國古代史探究學報》 3, 2009

박미선, <‘慈藏定律’조로 본 자장의 생애와 ‘定律’의 의미>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3, 2012

朴淳敦, 《金春秋의 執權過程 研究》, 慶北大 博士學位論文, 1999

濱田耕策, <新羅의 寺院成典と 皇龍寺의 歷史> 《學習院大學文學部研究年報》 28, 1981

신선혜, <신라 중고기 불교계의 동향과 승정> 《한국사학보》 26, 2006

신선혜, <신라의 불교 전래와 교단의 확립> 《불교연구》 33, 2010

신선혜, <《三國遺事》 ‘二惠同塵’조와 신라 중고기 불교계>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3, 2012

신종원, <三國遺事 <良志使錫>條 譯註> 《古文化》 40·41, 1992

辛鍾遠, <《三國遺事》 善德王知幾三事의 몇 가지 問題>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7, 1996

엄기영, <志鬼 설화의 형성 배경과 역사적 의미> 《민족문화연구》 47, 2007

- 呂聖九, <신라인의 출가와 도승> 《震檀學報》 101, 2006
- 廉仲燮, <善德王의 轉輪聖王적인 측면 고찰> 《史學研究》 93, 2009
- 옥나영, <《관정경》과 7세기 신라 밀교> 《역사와 현실》 63, 2007
- 尹善泰, <新羅의 成典寺院과 衿荷臣> 《韓國史研究》 108, 2000
- 尹善泰, <新羅 中代의 成典寺院과 國家儀禮>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3, 2002
- 이근직, <신라 왕경의 형성과정과 사원> 《東岳美術史學》 11, 2010
- 李基白, <三國時代 佛教 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 《歷史學報》 6, 1954
- 李基白, <皇龍寺와 그 創建> 《新羅時代의 國家佛教와 儒教》, 韓國研究院, 1978
- 李箕永, <仁王般若經과 護國佛教 - 그 本質과 歷史的 展開> 《東洋學》 5, 1975
- 李相勳, <羅唐戰爭期 文豆婁秘法과 海戰> 《新羅文化》 37, 2011
- 李泳鎬, <新羅中代 王室寺院의 官司的 機能> 《韓國史研究》 43, 1983
- 李泳鎬, <新羅 成典寺院의 成立>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4, 1993
- 李仁哲, <新羅上代의 佛寺造營과 그 社會·經濟的 基盤> 《白山學報》 52, 1999
- 李仁哲, <芬皇寺 創建의 政治·經濟的 背景>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0, 1999
- 張志勳, <慈藏과 芬皇寺>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0, 1999
- 鄭容淑, <新羅 善德王代の 정국동향과 毗曇의 亂>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論叢》 (上), 一潮閣, 1994
- 조원숙, <신라의 度僧 시행> 《新羅史學報》 19, 2010
- 曹元榮, <新羅 中古期 佛教의 密敎的 性格과 《藥師經》> 《釜大史學》 23, 1999
- 조원영, <新羅 中代 神印宗의 成立과 그 美術> 《釜山史學》 40·41, 2001
- 朱甫暎, <毗曇의 亂과 善德王代 政治運營>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論叢》 (上), 一潮閣, 1994
- 蔡尙植, <新羅統一期の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 8, 1984
- 崔柄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 崔致遠의 四山碑銘을 中心으로 -> 《韓國史研究》 7, 1972
- 崔源植, <新羅의 菩薩戒 受容과 그 流布> 《國史館論叢》 29, 1991
- 최희준, <《三國遺事》 皇龍寺九層木塔條에 대한 재검토와 阿非의 출자> 《한

국학논총》 36, 2011

허인욱, <《三國遺事》 皇龍寺九層塔條의 編年 검토> 《사학연구》 113, 2014  
黃尙周, <《三國史記》 記事와 寺址로 본 新羅 成典寺院의 數에 대한 疑問> 《新  
羅文化》 25, 2005

## ABSTRACT

## A Study on Policy on Buddhism during the Reign of King Sundeok in Silla

Kim, Deok-won

King Sundeok made a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on ‘queen’ raised in the process of ascending the throne by pushing forward policy on Buddhism. The policy of Buddhism in King Sundeok era can be said to typically accept the acceptance of new Buddhistic thought focusing on Buddhist service activities and priests’ activity including foundation of temples and construction of towers. And the policy of Buddhism in King Sundeok can be divided to two periods of the first half and the second half based on 642 year.

The policy of Buddhism in early King Sundeok era preached InwangSutra (仁王經) by founding Bunhwangsa Temple(芬皇寺) and Youngmyosa Temple(靈廟寺) holding Backgojwahwei(百高座會) in Hwangyongsa Temple(皇龍寺) and carried out Doseung(度僧) system. And the policy of Buddhism in the latter era founded Tongdosa Temple(通度寺), nine-story wooden Pagoda of Hwangyongsa Temple(皇龍寺九層木塔) and carried out Doseung system, which is characterized by Jajang(慈藏) playing a great role.

Due to the influence of active policy of Buddhism in King Sundeok era, more priests acted than other eras, among whom Jajang is the most

representative and also Milbon(密本)·Yangji(良志)·Hyeongong(惠空)·Wonhyo(元曉)·Myeongrang(明朗) etc. acted. Also as a consequence of their vigorous activities, new Buddhist thought was accepted, which indicated a picture of religious orders expanded.

Key words : King Sundeok(善德王), the policy of Buddhism(불교정책), foundation of temples(사원 창건), Buddhist service activity(佛事활동), priest activity(승려 활동), Buddhist thought(불교사상), Doseung(度僧), Jajang(慈藏)

논문 투고일 : 2014. 7. 30    심사 완료일 : 2014. 8. 11    게재 확정일 : 2014. 8. 12